

상형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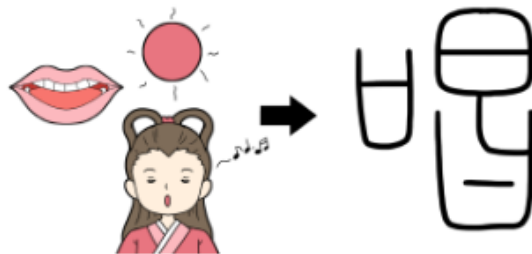
止

그칠 지

止자는 '그치다'나 '멈추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갑골문을 나온 止자를 보면 엄지발가락이 길게 뻗어 있는 발이 그려졌었다. 이것은 사람의 발을 그린 것이지만 사전적으로는 '그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발걸음이 멈추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止자는 '금지(禁止)하다'와 같이 무언가를 멈추거나 억제한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止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가다'나 '이동하다'처럼 사람의 움직임과 관련된 뜻을 전달한다. 그렇기에 止자가 단독으로 쓰일 때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뜻이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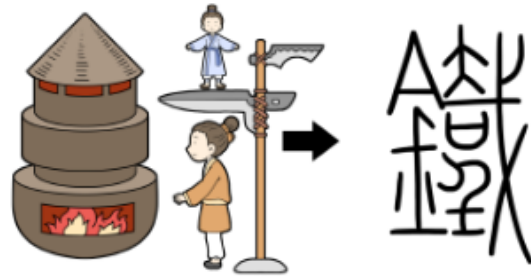
唱

부를 창:

唱자는 '(노래를)부르다'나 '말을 꺼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唱자는 口(입 구)자와 昌(창성할 창)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昌자는 태양 아래에서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이전에는 '노래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昌자가 태양의 강렬함에 빚대어 '창성하다', '번성하다'의 뜻을 갖게 되자 여기에 口자를 더한 唱자가 '말을 꺼내다'나 '(노래를)부르다'를 뜻하게 되었다.

소전	해서

형성문자①



鐵

쇠 철

鐵자는 ‘철’이나 ‘무기’, ‘단단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鐵자는 金(쇠 금)자와 戴(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戴 자는 哉(어조사 재)자에 冫(천간 임)자가 더해진 것이지만 별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鐵자는 단단하고 강한 강도를 가진 쇠를 뜻한다. 청동기 시대를 거쳐 철기시대로 진입하면서 인류는 전쟁과 관련된 수많은 무기를 철제로 바꿔나가기 시작했다. 철이 청동기보다 훨씬 강도가 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鐵자는 ‘단단하다’나 ‘견고하다’라는 뜻 외에도 철제로 만든 ‘무기’나 ‘갑옷’을 뜻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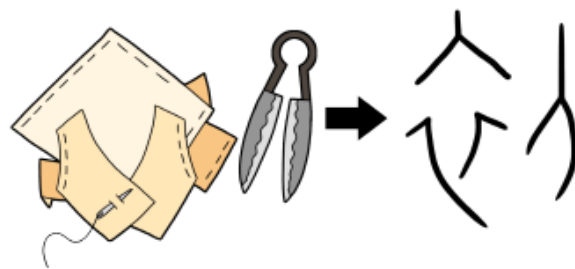
鐵

소전

鐵

해서

회의문자①



初

처음 초

初자는 ‘처음’이나 ‘시작’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初자는 衤(옷 의)자와 刀(칼 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여기서 衤 자는 衣(옷 의)자의 부수자이기 때문에 初자는 옷과 칼을 함께 그린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初자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천이나 가죽에 칼질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처음’이나 ‘시작’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初

갑골문

初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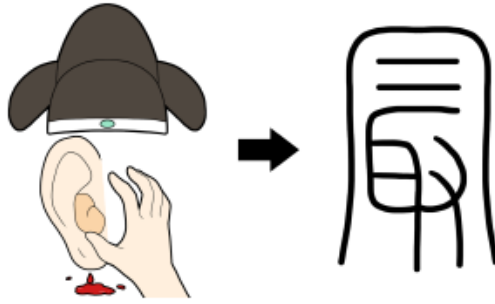
初

소전

初

해서

회의문자①



最

가장 최:

最자는 '가장'이나 '최상'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最자는 臼(가로 알)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는 있지만 '말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最자에 쓰인 臼자는 冑(무릅쓸 모)자가 생략된 것
이기 때문이다. 最자의 소전을 보면 감투 안으로 귀를 잡은 冑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모자를 취하다' 즉, '모자를 빼앗다'라는 뜻이다. 남의 모자를 빼앗는다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
동이다. 그래서 最자는 본래 매우 예의 없는 사람을 일컫던 말이었다. 그러나 후에 모자를 '관
직'에 비유하면서 실력이 뛰어나 '관직을 얻은 사람'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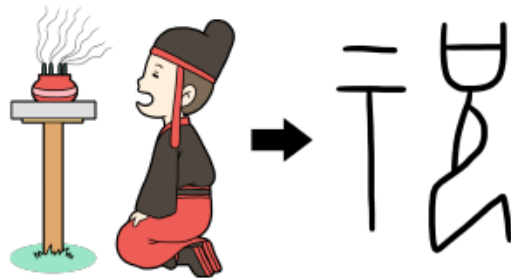
冑

소전

最

해서

회의문자①



祝

빌 축

祝자는 '빌다'나 '기원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祝자는 示(보일 시)자와 兄(만 형)자가 결
합한 모습이다. 兄자는 무릎을 꿇고 축문(祝文)을 읽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축문을
읽는 모습에 示자가 결합한 祝자는 제단 앞에서 축문을 읽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다. 지금도
제사를 지낼 때는 축문을 읽어 신에게 제사가 시작됨을 고하게 된다. 그래서 祝자는 신에게
기원한다는 의미에서 '빌다'나 '기원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示兄

갑골문

祝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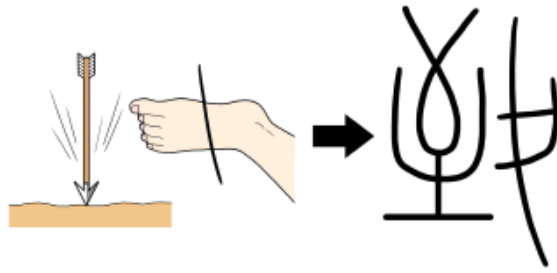
祝

소전

祝

해서

회의문자①



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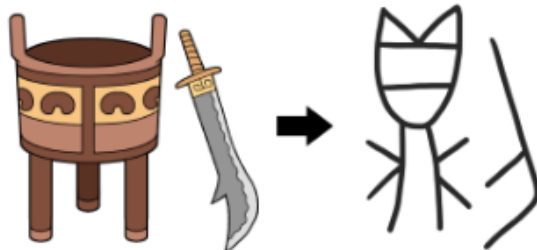
이를 치:

致자는 '이르다'나 '보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致자는 至(이를 지)자와 攴(칠 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攴자가 아닌 攴(천천히 걸을 쇠)자가 쓰였었다. 攴자는 '발'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소전에서의 致자는 '이르다'라는 뜻의 至자에 攴자를 결합해 발걸음이 어느 지점에 도달했음을 뜻했었다. 그러나 해서에서는 攴자가 攴자로 잘못 바뀌면서 본래의 의미를 알기 어렵게 되었다.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則

법칙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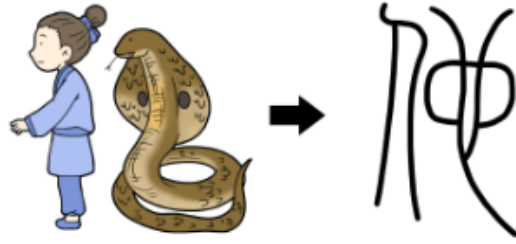
則자는 '법칙'이나 '준칙'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則자는 貝(조개 패)자와 刀(칼 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則자의 금문으로 보면 貝자가 아닌 鼎(술 정)자가 鼎(술 정) 그려져 있었다. 鼎자는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던 술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鼎자는 신성함을 상징하기도 한다. 則자는 이렇게 신성함을 뜻하는 鼎자에 刀자를 결합한 것으로 칼로 술에 문자를 새겨 넣는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금문(金文)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술에 새겨져 있던 글자를 말한다. 그렇다면 술에는 어떤 글들을 적어놓았을까? 대부분은 신과의 소통을 위한 글귀들을 적어놓았다. 신이 전하는 말이니 그것이 곧 '법칙'인 셈이다.

금문

소전

해서

형성문자①



他

다를 타

他자는 '다르다'나 '다른'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他자는 人(사람 인)자와 也(어조사 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다르다'라는 뜻은 본래 佗(다를 타)자가 먼저 쓰였었다. 佗자에 쓰인 它(다를 타)자는 뱀의 형상을 본뜬 것으로 '다르다'나 '뱀'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佗자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뜻을 가진 它자에 人자를 더한 것으로 '다른(它) 사람(人)'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었다. 그러나 소전에서서의 它자(它)와 也자(也)가 혼동되었었는지 지금은 也자가 들어간 他자가 '다르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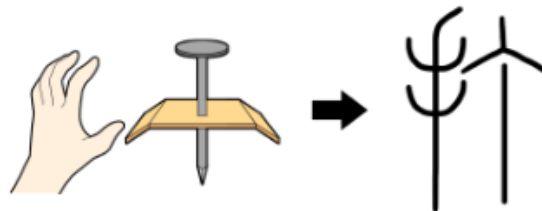
佗

소전

他

해서

회의문자①



打

칠 타:

打자는 '치다'나 '때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打자는 手(손 수)자와 丁(못 정)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丁자는 나무에 못질할 때 사용하는 '못'을 그린 것이다. 그러니 打자는 마치 손으로 못을 내리치는 듯한 모습을 그린 것과도 같다. 다만 打자는 단순히 '때리다'라는 뜻 외에도 어떠한 동작을행하고 있음을 뜻하는 접두어로 쓰일 때도 있다.

𢦏

소전

打

해서